

“청년 작가들 지원 아끼지 않겠다”

만났어요!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오랜 만에 청년 작가 전시를 보니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기분이 들어요. 작품은 작가의 생명이요 철학이 담겼죠. 작품 속에 녹아있는 작가들의 메시지가 가슴 깊이 들어와요. 어서 빨리 작가들을 만나고 싶네요...”

지난 28일 제23회 하정웅 청년 작가초대전 빛 2023 ‘위상의 변주’가 열리는 하정웅 미술관을 찾은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84)의 두 눈은 전시를 둘러보는 내내 반짝였다.

하 명예관장은 코로나19와 건강상의 이유로 5년간 청년작가 초대전에 출품한 작품을 보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인지 일본 가와구찌(Kawaguchi)사에서 함께 온 아내 윤창자·딸 하우모 씨와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세밀하게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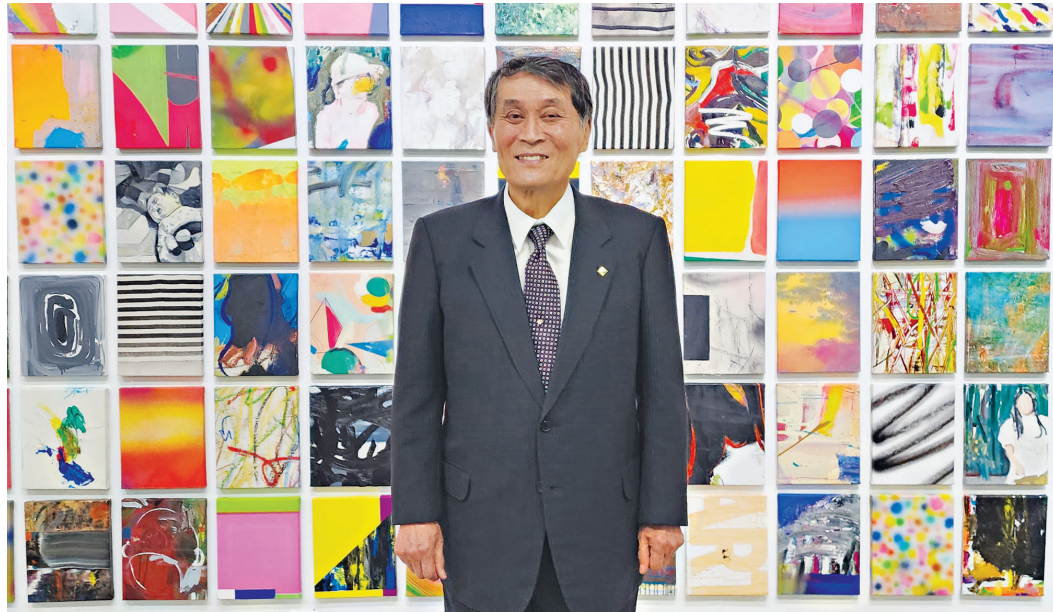
하 명예관장이 청년 작가 초대전을 열게 된 배경은 그의 메세나 정신에서부터 출발한다. 메세나는 기업이 문화 예술을 지원해 사회공헌과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것을 총칭한다. 하 명예관장은 광주시립미술관이 개관한 1993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광주시립미술관에는 지난 2018년까지 8차례에 걸쳐 수집한 작품 2,500여 점을 기증했다. 서울과 국립시설보다는 열악한 지역에 기증의 뜻이 컸다. 재일교포인 그가 광주에 기증을 시작하게 된 것은 고 오지호 화백과 그의 가족들과 인연 때문이다. 이후 광주의 문화계의 실정을 알게 되면서 기증을 이어가게 됐다. 광주 기증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 명예관장은 “처음 작품을 광주에 기증할 때 주변에서는 만류했다”라며 “서울에 있는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면 더 가치 있게 대우를 받을 텐데 왜 광주냐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서울은 다양한 전시를 열 기회는 많지만 지역은 열악하므로 균등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광주도 그중 한 곳이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광주 기증의 연은 청년작가 지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19명의 작가를 배출했다.

하 명예관장은 “끊이지 않은 기부로 광주시가 화답하고 싶다”며 “무얼 해주면 좋을 지 제 안했다. 그도 떠오른 것이 청년작가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하 명예관장의 메세나 정신은 광주에서만 이어온 것은 아니다. 부모님의 고향인 영암과 전북도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



하정웅 명예관장이 제23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 2023 ‘위상의 변주’ 참여작가인 강원제 작가 ‘선택된, 선택되지 않은 그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5년 만에 청년작가 초대전 참가

오늘 영암미술관에 800점 기증

광주 청년작가 총 119명 배출도

“기부문화 확산 보니 마음 뿌듯”

관, 포항시립미술관 등지에 모두 1만 2,000여 점을 기증했다. 30일에는 영암하정웅미술관에 800여점의 소장품을 기증한다.

하 명예관장이 그림을 수집하게 된 시점은 1964년 제18회 도쿄올림픽 당시 전자제품 판매점을 하며 큰 수익을 얻으면서다. 가난으로 이루지 못한 꿈의 한 때문이었을까. 수익금으로 재일 동포 화가의 작품을 사들여 모으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노역으로 희생당했던 부모님과 재일동포를 기억하기 위함도 있다. 그렇게 수집한 작품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역사 현장인 아키타 타자와 호수 인근에 ‘기도의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했지만 무산됐다.

하 명예관장은 “일본에서 재일교포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화가가 꿈이었다”며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 대학을 가고 싶었고 또 교육자의 꿈을 꾀지만 쉽지 않았다.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재일동포 화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일동포 작가들의 작품에는 민족사가 담겼다. 그렇기에 처음엔 재일동포 작가의 그림을 수집했다. 자그마한 일이지만 촛불의 씨를 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그의 컬렉터 실력은 놀라움을 던져준

다. 이우환, 박인식, 전화환, 오일 재일동포 작품 수집을 시작으로 고향과 조국을 떠나 살았던 디아스포라 작가 사갈과 파카소 등이다.

하 명예관장의 기부가 기폭제가 돼 늘어난 개인 작품기증을 보고 뿌듯함을 전하기도 했다. 하 명예관장은 “과거 미술관 기증품은 하정웅 컬렉션이 90%였다”며 “이제는 50%가 타인의 기부인데 기부 물결이 곳곳에 미치는 듯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하 명예관장은 제1회 청년작가전을 찾았을 때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에 대해 끊이지 않는 열정을 내비쳤다.

하 명예관장은 “오랜만에 청년작가 초대전을 찾으니 1회 청년작가 초대전 당시가 떠오른다”며 “그 당시 인사말을 전할 때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지낸 소설가 앙드레 말로의 ‘예술은 사람을 만들고 국가를 만든다. 국가는 예술에 봉사해야 한다’를 인용해 국가는 예술에 투자한다는 말을 덧붙였던 것이 떠오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광주의 빛(光)이 청년들에게 비추고 이들은 그 빛을 받아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 빛은 다시 광주를 비출 것이다”고 말했다.

하 명예관장은 “이제 체력도 점점 쇠약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있다. 살아있는 한 청년작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싶다”며 “기억력이 있을 때 청년작가들과 많이 대화하고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한편 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위상의 변주’는 7월 16일까지 이어지며 이번전시에는 초대전에는 강원제, 김덕희, 유지원, 안준영 작가가 참여했다.

/글·사진·이나라 기자

ACC재단, 시민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내달 7일까지 접수...170명 선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2023ACC 시민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단원을 오는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지역 생활예술 음악인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연주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민 참여 공연 프로그램으로, 2016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특히 그 동안 성인 아마추어 음악인 중심이었던 단원 모집을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참여연령을 크게 낮췄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오케스트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75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ACC재단은 지원자에 대한 서류 심사와 오디션(3분 자유곡 연주)을 거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13개 분야에서 단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단원들에게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문 강사의 지도와 함께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오는 10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개최하는 시민오케스트라 연주회 무대에 서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여물어가는 씨앗 생명 잉태...한남순 개인전 ‘축제’

내달 1~7일 이화갤러리

서양화가 한남순 작가 개인전 ‘축제’가 내달 1~7일 광주 동구 이화갤러리에서 열린다.

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표제작 ‘축제’ 등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 작가는 민들레 홀씨에서 모티브를 얻어 ‘축제’라는 화두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여물어가는 씨앗은 생명을 잉태하고 소멸한다. 지구 한 바퀴 돌고 돌아 그 소멸은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이다. 폭발하는 것은 씨앗이 빔이며 순환하는 생명 에너지의 분출이다. 확장돼가는 작업의 시간 어둠을 밝히는 무수한 색과 점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생명의 에너지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한남순 ‘축제’

전남도립미술관, 지역 문화예술 연구개발 추진

순천대·에스씨크리에이티브 협력

6월까지 ‘확장현실 기술’ 워크숍

전남도립미술관이 대학과 벤처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전남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분야 연구개발에 나선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6월까지 순천대(영상디자인학과 김동조·양한민 교수)와 ㈜에스씨크리에이티브와 함께 확장현실 기술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1차 워크숍은 29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강연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속 설연수 선임 연구원으로 ‘실감 콘텐츠 동향과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강연을 통해 전남도립미술관은 실무자에게 확장현실 적용이 가능한 실감콘텐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벤처기업이 이를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립미술관은 순천대 산학협력단과 지역 벤처기업인 ㈜에스씨크리에이티브와 함께 문화콘텐츠 R&D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남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의 문화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이지호 관장은 “순천대와 지역 젊은 인재 양성을 통해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전남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1세기 융·복합 인력 기술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าวน์โหลด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1 다운로드 ONE store